

#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Husbands and Wives in Dual-Earner Families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수 유계숙\*  
석사과정 강수향  
오아림  
이주현\*\*

Dept. of Children and Family Studies, Kyunghe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Gye-Sook Yoo*

Dept. of Children and Family Studies, Kyunghee University

*Master Course: Sue-Hyang Kang*

Ah-Rim Oh

Joo-Hyun L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in dual-earner families. Data were collected from 193 couples in dual-earner families; the questionnaire measurements were based on recommendations from the literature review.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inquiries concerning gender role attitudes, marital communication efficiency, division of household

\* 주저자: 유계숙 (dongrazi@khu.ac.kr)

\*\* 교신저자: 이주현 (joon713@hanmail.net)

labor, satisfaction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marital satisfaction. Each of these categories had an individual measurement scale that enabled measurement of its impact on marital satisfac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ouples in dual-earner families showed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s and high levels of marital communication efficiency. They also reported high levels of satisfaction with thei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their marital lives. Wives in dual-earner families had more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s compared with their husbands, and husbands perceived themselves to be investing more time in performing household chores (that is,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than was perceived by their wives. Husbands were also more satisfied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marital life compared to their wives. Finall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atisfaction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in marital communication efficiency (as perceived by the couples) significantly predicted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wives' age, marital communication efficiency, and the differences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s perceived by the couples) significantly predicted wives' marital satisfaction.

**Key Words :** 맞벌이 가정(dual-earner families), 성역할태도(gender role attitude), 부부 의사소통효율성(marital communication efficiency), 가사분담(division of household labor),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 I. 서론

20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여성의 교육수준 및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여성의 고용률은 외환위기로 인해 44.4%로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월에는 49.2%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a).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실제로 통계청(2009)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3.8%는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3.5%는 '가정 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맞벌이를 선호하는 기혼남성은 2006년 65.3%에서 2009년 81.5%로 늘어나(통계청, 2010b), 맞벌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기혼 남성들의 맞벌이 선호 경향의 증가와 더불어 각 가정의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정은 점차 보편적인 가족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맞벌이 부부는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 별로 맞벌이 부부의 비율을 살펴보면 40대가 4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0대(43.1%), 30대 이하(38.9%), 60대 이상(24.7%)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증대되면서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분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문숙재·허경옥·홍윤정, 1997).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을 보조해 줄 다른 가족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러한 책임을 스스로 수행해야 할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홍윤정, 1996) 과거보다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성이 홀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는 여성이 전적으로 가사를 전담하기 때문에 가사분담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달리 여성도 남성과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2인생계부양자 모델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가사를 함께 분담해야 하지만, 가사분담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학자들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남성들이 가사에 더욱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Crouter & Helms-Erikson, 2000)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 분담하는 가사노동은 남성이 홀로 경제활동을 하는 홑벌이 부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채로·이기영, 2004).

가사노동의 갈등은 일반적으로 부부에게 있어 긴장의 원인이 되는데(Tallman et al., 1998; Veroff et al., 2000 재인용), 맞벌이 부부는 역할 구조의 조정 및 적응에 관한 표준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부부간 갈등의 커지고, 가정생활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기연, 2000). 또한 남편의 가사분담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Suitor, 1991), 부부의 결혼만족도에는 부부가 실제 가사노동에 투입한 시간보다는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실제 담당하고 있는 가사분담 정도의 차이(McHale & Crouter, 1992),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문숙재 외, 1997), 그리고 공평성 지각 (이미숙, 1997; 홍운정, 1996; Wilkie et al., 1998) 등과 같은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부부의 태도나 지각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가사노동분담 시간에 대한 태도나 지각은 부부 중 누구 한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 모두 가지는 것이며, 결혼생활은 부부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관계 중심

적 생활이므로 2인 관계 측면에서 맞벌이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부부의 태도나 지각이 실제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가사분담에 대한 부부의 태도 및 지각과 개인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연구가 되었더라도 부부가 아닌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거나(강기연, 2000; 김현주, 2003) 실제 가사노동에 투입한 시간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그쳤다(유희숙, 1999). 또한 다수의 연구가 만족도 차이보다는 공평성 지각(이미숙, 1997; 홍운정, 1996)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가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인 관계 측면에서 맞벌이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과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및 상담 등과 같은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2009년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결과 맞벌이가정 부인의 평일 노동시간은 2시간 40분으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23분)에 비해 약 2시간 20분 가량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주말 역시 남편이 68분 가사노동을 하는 것에 비해, 부인은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의 6배 정도인 5시간 53분을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택면 외, 2009). 이는 전통적으로 부인의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여전히 부인의 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이 부부의 가사분담 시간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부부의 연령, 자녀수, 가사도우미의 유무, 가구의 소득, 성역할태도 등과 같은 변인들에 의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분담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연령과 가사분담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에서는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내놓았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맞벌이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남편이 가사노동에 능동적인 태도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성영애·양세정, 1996; 채로, 2003; 최수선, 1995), Gershuny (2000)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손문금, 2005). 또한 홀벌이 가정의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총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맞벌이 가정의 부인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총 노동시간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이중노동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남편의 노동시간 보다 더 긴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김진옥, 2005). 맞벌이 가정의 자녀수 역시 부부의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두경자·유희숙, 2000; 이미숙, 1996).

한편, 가사도우미는 가사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주므로, 노동시간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에 시달리는 맞벌이 부인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김선미, 2008). 가사도우미의 고용은 남편보다는 부인의 가사

노동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홍윤정, 1996), 이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가구의 총소득과 높은 관련이 있는데 이는 맞벌이 가정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가사도우미 고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채로, 2003).

맞벌이 가정의 소득과 가사분담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부의 상대적 소득이 가사분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편의 상대적인 소득과 지위가 높을 경우에는 대개 남편의 가사참여가 낮고 전통적 가사분담의 형식을 가지며,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신, 2001; McHale & Crouter, 1992).

한편,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서도 부부의 가사분담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역할 태도는 부부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행동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며(김금옥, 1998), 전통적인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여성(또는 남성)의 역할이나 특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말한다(조지은, 2005). 부인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사를 남녀의 일로 구분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분담하는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가 더욱 요구된다(이미숙, 1996).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남편을 둔 부인인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남편을 둔 부인보다 가사노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보적인 관념을 가진 부부일수록 성역할차이를 감소시키려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비춰진다(Bianchi et al., 2000).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직 맞벌이 부인은 남편의 가사분담을 인정하는 반면, 전통적 성별분업에 기초한 보수적 사고를 가진 생산직 부인은 자신의 수입으로 인해 남편의 남성성과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하락할 것을 걱정하여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신, 1998). 이는 부인의 소득 기여가 남편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해 부인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유계숙, 2010)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 분배 사이의 부조화는 결혼과 가사분담에 대한 개인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rbusch & Custer, 1995; Tallman & Riley, 1995; Vangelisti & Huston, 1994; Veroff et al., 2000 재인용).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는 맞벌이 부부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분담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으며, 부부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사를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희, 1994; 유희숙·두경자, 1999).

## 2. 부부의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크게 결혼만족도를 객관적인 차원으로 보는 관점과 주관적인 차원으로 보는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Lewis & Spanier (1979)은 결혼만족도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결혼에 대한 개인의 기대수준과 실제로 받는 보상사이의 일치정도로 보았으며, Burr(1973)는 결혼만족도를 주관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결혼에 대한 즐거움, 만족, 행복 등의 주관적 반응으로 보았다(김화자, 1990). Jeries(1979) 또한 주관적인 측면에서 결혼만족도를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 만족, 기쁨 등에 대한 부부의 주관적 감정 또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가족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들

은 주로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결혼만족도 개념을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를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으로 보고 부부가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기쁨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감정 또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결혼만족도는 대체로 연령, 자녀수, 월평균 소득, 결혼지속년수 등과 같은 부부의 인구사회학적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 효율성과 같은 개인적·관계적 변인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부부의 연령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에 대해 조사한 연구(김진영, 2005)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tory와 동료들의 연구(2007)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많은 중년기에는 다소 결혼만족도가 낮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고 직장에서의 경쟁 등이 줄어든 노년기에는 다시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령, 2009).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순아와 정옥분(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없을 때 보다 자녀수가 3명이상일 때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수에 따라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정은애, 2007).

한편, 부부의 월평균 소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일치되지 않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반면(정기선 외, 2004),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최정혜, 2006).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들 또한 상이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Miller(1976)는 결혼지속년수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결혼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연구이며(지혜정, 2006), 다른 하나는 결혼 초기에는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가 그 후에 점차 감소하고 후기에 다시 높아지는 곡선적 관계를 지닌다는 연구(Rollins et al., 1974; 조지은, 2005 재인용)이다. 결혼지속년수와 결혼적응에 대해 조사한 국내의 연구(최유경, 2002)에서는 결혼지속년수가 증가할수록 부부의 결혼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효율성과 같은 변인들 또한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는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Amato와 Booth(1995)는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음을 보고하였으며, 윤경자(1997)는 남편은 진보적이고 아내는 보수적일 때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Spanier와 Lewis(1980)는 부부의 특성과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일치하여 역할 갈등이 적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내의 성역할 태도는 남편이나 아내 자신의 결혼만족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조정문, 1995).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과 결혼만족도가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심혜선과 이정우(2001)는 도시주부의 의사소통효율성과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정우와 강기연(2001)의 연구에서 맞벌이 부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직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공평성인지와 의사결정참여를 매개로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wis와 Spanier(1979)은 결혼의 질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가 자신에 대한 의사표현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더욱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결혼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김화자, 1990).

### 3.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

가족학 분야에서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은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와 관계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에 관해 다루었는지라도 대부분 부부의 불평등한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 부부의 가사분담이 야기하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 가사노동 분담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부부관계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유계숙, 2010)이므로 가사분담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불균형은 부부 문제를 야기하고(Chai, 1983; Hochschild, 1986; 김유순, 1998 재인용)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부인과 남편 모두의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itor, 1991). 마경희(2004)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 분담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한 결과, 부부간 가사분담 갈등은 부부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된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부인은 남편과 다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가사분담을 불공평하게 분담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더욱 많은 부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한편,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을 고려함에 있어 남편과 부인의 절대적인 가사노동 참여시간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같은 상황이라도 개인의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 그것을 인지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인지의 차이에 의해 개인의 만족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문숙재 외, 1997). Keith와 동료들(1992)과 Atchley(1992)는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행위 자체보다는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홍윤정, 1996), Frisco와 Williams(2003)는 가사노동에 투입한 절대적 시간보다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부부의 해석이 결혼생활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가사분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인이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해 공평하다고 인지할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awkins et al., 1994; Lye & Biblarz, 1993; Pina & Bengston, 1993). 가사노동분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 주관적, 심리적 과정을 중요하게 다룬 국내의 연구(문숙재 외, 1997)에서도 가사분담에 대한 부부의 공평성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ie와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은 공평성 인지를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맞벌이 가정의 부인을 대상으로 부부의 가사분담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유계숙, 2010)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남편은 주말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부인

은 평일과 주말 모두 상당한 양의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은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해 보통의 수준보다 약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부인의 주관적인 만족은 부인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기존의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는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사분담, 성역할태도, 의사소통 효율성과 같은 개인적·관계적 변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내놓고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맞벌이 가정의 가사분담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에 있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 태도나 의사소통효율성과 같은 변인들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조사함에 있어 가사분담의 실제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가사분담에 대한 부부의 지각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부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제한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부의 성역할태도,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 부부의 가사분담만족도,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부의 성역할태도,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투자비율, 부부의 가사분담만족도는 부부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부의 성

역할태도,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투자비용, 부부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198쌍에게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누락 및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93쌍의 설문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부 남편의 연령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27세부터 52세까지이며, 20대가 5.8%, 30대가 84.5%, 40대 이상이 9.8%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부인의 연령대는 25세부터 46세로 나타나 남편의 연령대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17.6%, 30대가 80.4%, 40대 이상이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편과 부인 모두 3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자녀수는 1명에서 3명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자녀수가 2명(38.3%), 3명(0.5%)인 부부에 비해 자녀수가 1명인 부부(61.1%)가 가장 많았다. 넷째, 맞벌이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400만원대가 3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300만원대(24.9%), 500만원대(24.4%), 200만원대(6.2%), 600만원대(5.2%), 700만원 이상(1.0%)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맞벌이 부부의 결혼지속년수는 최저 1년에서 15년으로, 1~5년차의 부부가 5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6~10년차의 부부가 45.1%, 12~15년차 부부가 1.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한 맞벌이

가정은 대부분 가사도우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6.0%),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는 1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성역할태도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emaris와 Longmore(1996), Kulik(1999)의 연구를 기초로 강기연(2000)이 구성한 9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매우 반대(1점)’-‘매우 찬성(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9점-4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남편 .58, 부인 .60으로 나타났다.

##### 2) 의사소통효율성

의사소통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Bienvenu(1970)가 개발한 부부 의사소통 척도(MCI: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내용보다는 부부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과 말하는 태도를 조사하고, 부부간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는지, 혹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매우 반대(1점)’-‘매우 찬성(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개의 긍정적 문항과 14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남편 .72, 부인 .72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N(%)	M(SD)
남편의 만 연령 (세)	N=193명	
20대	11(5.8)	34.91(3.08)
30대	163(84.5)	
40대 이상	19(9.8)	
부인의 만 연령 (세)	N=193명	
20대	70(17.6)	32.48(3.42)
30대	155(80.4)	
40대 이상	4(2.0)	
자녀수 (명)	N=193쌍	
1명	118(61.1)	1.39(.50)
2명	74(38.3)	
3명	1(0.5)	
가구 월평균소득 (만원)	N=193쌍	
200만원대	12(6.2)	402.07(108.95)
300만원대	48(24.9)	
400만원대	74(38.3)	
500만원대	47(24.4)	
600만원대	10(5.2)	
700만원 이상	2(1.0)	
결혼지속년수 (년)	N=193쌍	
1~5년	103(53.4)	5.45(2.25)
6~10년	87(45.1)	
12~15년	3(1.5)	
가사도우미 유무	N=193쌍	
있다	27(14.0)	
없다	166(86.0)	

### 3) 지각된 가사분담투자비율 및 가사분담 만족도

지각된 가사분담투자비율 및 가사분담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가사분담투자비율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부인: 100% 전담, 남편: 0% 전담(1점)’-‘부인: 0% 전담, 남편: 100% 전

담(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인의 가사분담 투자비율이 높다고,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분담 투자비율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가사분담 만족도는 5점의 리커트 척도로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결혼생활에서의 다양한 현상을 축약하여 단일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Schumm과 동료들(1983)이 개발한 Kansas 결혼만족도 척도(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S)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남편 .91, 부인 .94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의 성역할태도,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투자비율, 부부의 가사분담 만족도,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부부의 개인적 데이터를 관계적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하여 Robinson(1983)은 부부의 응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차이점수를,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는데(Larsen & Olson, 1990)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변인인 성역할태도,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투자비율,

가사분담만족도가 부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의 연구문제에서 부부간 차이점수로 사용되었으며,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은 부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평균점수로 사용되었다. 셋째,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부의 성역할태도,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투자비율, 부부의 가사분담 만족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 지각된 의사소통 효율성, 가사분담 만족도, 결혼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 지각된 의사소통 효율성, 가사분담 만족도, 결혼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2>와 같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는 45점 만점에 29.18점으로 다소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은 95점 만점에 63.42점으로 비교적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0점으로 맞벌이 부부는 자신들의 가사분담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는 15점

만점에 11.34점으로 맞벌이 부부는 결혼생활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부부간 성역할태도, 지각된 의사소통효율성, 지각된 가사분담에서의 투자비율, 가사분담 만족도, 결혼만족도의 차이

부부간 성역할태도, 지각된 의사소통효율성, 지각된 가사분담에서의 투자비율, 가사분담 만족도,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성역할태도의 경우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27.87점, 부인의 성역할태도는 30.49점으로 부인이 남편보다 더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지각된 의사소통효율성의 경우 남편이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은 63.22점, 부인이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은 63.63점으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부부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에서의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남편이 지각한 가사분담에서의 투자비율은 2.20점, 부인이 지각한 가사분담에서의 투자비율은 2.04점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 모두 가사분담에서 부인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남편은 부인이 지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가사분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지각된 의사소통효율성, 가사분담 만족도, 결혼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

N = 193 (단위: 쌍)

변인	M(SD)
성역할태도	29.18(3.85)
지각된 의사소통효율성	63.42(8.31)
가사분담 만족도	3.30(.62)
결혼만족도	11.34(1.78)

〈표 3〉 부부간 성역할태도, 지각된 의사소통효율성, 지각된 가사분담에서의 투자비율, 가사분담 만족도, 결혼만족도의 차이

N = 193 (단위: 쌍)

변인	남편(n=193)	부인(n=193)	t
	M(SD)	M(SD)	
성역할태도	27.87(5.07)	30.49(4.32)	-6.70***
지각된 의사소통효율성	63.22(8.90)	63.63(9.76)	-.67
지각된 가사분담에서의 투자비율	2.20(.70)	2.04(.60)	3.28**
가사분담 만족도	3.64(.72)	2.95(.87)	9.44***
결혼만족도	11.83(1.92)	10.84(2.22)	6.42***

( $p < .01$ ). 대응표본 t검정 결과, 가사분담 투자비율에 대한 부부의 지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 만족도의 경우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3.64점, 부인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2.95점으로 나타나 남편이 부인보다 가사분담에 대해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1$ ). 마지막으로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11.83점,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10.84점으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부인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부간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 3. 맞벌이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투자비율 차이와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1) 맞벌이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투자비율 차이와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투자비율 차이와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Model 1에서 남편의 만 연령과 자녀수, 가

족의 월평균 소득과 결혼지속년수 그리고 가사도우미 유무를 모델에 투입하여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은 남편의 결혼생활만족도 변량의 1.8%만을 설명하는데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Model 2에서 부부의 성역할태도 차이와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 평균을 추가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22.2%로 Model 1보다 설명력이 20.4% 증가하였다( $F=7.525$ ,  $p < .001$ ).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평균( $\beta=.450$ ,  $p < .0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가 의사소통이 효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Model 3에서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의 차이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남편의 결혼만족도 변량의 23.8%를 설명함으로써 설명력이 1.6% 증가하였다( $F=7.198$ ,  $p < .001$ ).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나타났던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평균의 유의한 영향과 함께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의 차이( $\beta=.136$ ,  $p < .05$ )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의 평균이 높고,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의 차이가 클수록 남편의 결혼만

**〈표 4〉 맞벌이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투자비용 차이와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 = 193 (단위: 명)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상수	10.567		4.068		3.716		2.039	
남편의 만 연령	.015	.030	.019	.038	.016	.032	.033	.065
자녀수	.407	.106	.312	.081	.346	.090	.281	.073
가족의 월평균 소득	.001	.038	.001	.031	.000	.019	.000	-.023
결혼지속년수	-.030	-.035	-.023	-.027	-.031	-.036	-.014	-.016
가사도우미 유무 <sup>a</sup>	.412	.074	.105	.019	.163	.030	.324	.058
부부의 성역할태도 차이			-.011	-.023	-.026	-.056	-.027	-.058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의 평균			.104	.450***	.106	.458***	.091	.391***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의 차이					.259	.136*	.217	.115
가사분담에 대한 남편의 만족도							.624	.235**
가사분담에 대한 부인의 만족도							.054	.025
$R^2$	.018		.222		.238		.288	
F for change in $R^2$	.701		7.525***		7.198***		7.366***	

주: a 가사도우미 유무: 0=없음, 1=있음

VIF = 1.003-1.641

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Model 4에서 가사분담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만족도를 추가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28.8%로 Model 3보다 5.0%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F=7.366, p<.001$ ). 추가로 투입한 가사분담에 대한 남편의 만족도 변인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235, p<.01$ ), 독립변인들 중에서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의 지각된 의사소통효율성( $\beta=.391, p<.0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 평균이 높을수록, 가사분담에 대한 남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맞벌이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투자비용

차이와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투자비용 차이와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앞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Model 1에서 부인의 만 연령과 자녀수, 가족의 월평균 소득과 결혼지속년수 그리고 가사도우미 유무를 모델에 투입하여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은 부인의 결혼생활만족도 변량의 4.1%만을 설명하는데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Model 2에서 부부의 성역할태도 차이와 지각된 의사소통효율성 평균을 추가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34.2%로 Model 1보다

〈표 5〉 맞벌이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투자비율 차이와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 = 193 (단위: 명)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상수	13.050		5.341		6.356		3.597	
부인의 만 연령	-.092	-.141	-.122	-.187**	-.126	-.194**	-.098	-.151*
자녀수	.458	.103	.313	.070	.245	.055	.114	.026
가족의 월평균 소득	.002	.078	.001	.070	.002	.095	.000	.014
결혼지속년수	-.088	-.089	-.037	-.037	-.013	-.013	-.029	-.029
가사도우미 유무 <sup>a</sup>	-.214	-.034	-.658	-.103	-.783	-.122*	-.522	-.082
부부의 성역할태도 차이			-.052	-.096	-.018	-.034	.002	.003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 평균			.141	.528***	.138	.514***	.110	.410***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의 차이					-.548	-.250***	-.249	-.114*
가사분담에 대한 남편의 만족도							.198	.064
가사분담에 대한 부인의 만족도							1.065	.419***
$R^2$	.041		.342		.398		.544	
F for change in $R^2$	1.609		13.764***		15.238***		21.674***	

주: a 가사도우미 유무: 0=없음, 1=있음

VIF = 1.003-1.641

30.1%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 $F=13.764, p<.001$ ).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인의 만 연령과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의 평균( $\beta=.528, p<.0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만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가 의사소통이 효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Model 3에서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의 차이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부인의 결혼만족도 변량의 39.8%를 설명함으로써 설명력이 5.6%증가하였다( $F=15.238, p<.001$ ).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나타났던 부인의 만 연령과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 평균의 유의한 영향과 함께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의 차이( $\beta=-.250, p<.001$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만 연령이 낮

을수록,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의 평균이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의 차이가 적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Model 4에서 가사분담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만족도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54.4%로 Model 3보다 14.6%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F=21.674, p<.001$ ). 추가로 투입한 가사분담에 대한 부인의 만족도 변인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19, p<.001$ ). 또한 독립변인들 중에서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인의 만 연령( $\beta=-.151, p<.05$ )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beta=.410, p<.001$ ),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 차이( $\beta=-.114, p<.05$ )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평균이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 차이가 적을수록, 가사분담에 대한 부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맞벌이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투자비율 차이와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부부간 결혼만족도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투자비율 차이와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부부간 결혼만족도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Model 1에서 남편과 부인의 만 연령과 자녀수, 가족의 월평균 소득과 결혼지속년수 그리고 가사도우미 유무를 모델에 투입하여 부부간 결혼만족도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은 부부간 결혼만족도 불일치

변량의 5.1%만을 설명하는데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Model 2에서 부부의 성역할태도 차이와 지각된 의사소통효율성 평균을 추가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9.9%로 Model 1보다 4.8%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F=2.530, p<.05$ ). 부부간 결혼만족도 불일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 효율성의 평균( $\beta=-.148, p<.0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가 의사소통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부부간 결혼만족도 불일치정도가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Model 3에서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의 차이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부부간 결혼만족도 불일치 변량의 12.0%를 설명함으로써 설명력이 2.1%증가하였다( $F=2.776, p<.01$ ). Model

(표 6) 맞벌이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투자비율 차이와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부부간 결혼만족도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

N = 193 (단위: 쌍)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상수	-2.104		-.290		-.688		1.081	
남편의 만 연령	.075	.167	.066	.146	.059	.131	.045	.101
부인의 만 연령	.050	.100	.053	.107	.060	.121	.054	.107
자녀수	.027	.008	.086	.025	.120	.035	.197	.058
가족의 월평균 소득	-.001	-.041	.000	-.028	-.001	-.043	.000	.016
결혼지속년수	-.044	-.057	-.062	-.082	-.071	-.094	-.066	-.087
가사도우미 유무 <sup>a</sup>	-.166	-.034	-.043	-.009	.018	.004	-.138	-.028
부부의 성역할태도 차이			.057	.139	.041	.100	.033	.080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 평균			-.030	-.148*	-.029	-.141	-.013	-.062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의 차이					.258	.153*	.147	.088
가사분담에 대한 남편의 만족도							-.273	-.116
가사분담에 대한 부인의 만족도							-.460	-.236**
$R^2$	.051		.099		.120		.182	
F for change in $R^2$	1.676		2.530*		2.776**		3.663***	

주: a 가사도우미 유무: 0=없음, 1=있음

VIF = 1.004-2.544

3에서는 Model 2에서 나타났던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 평균의 유의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의 차이( $\beta = .153, p < .01$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부인이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의 차이가 클수록 결혼만족도에서의 부부간 불일치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Model 4에서 가사분담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만족도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18.2%로 Model 3보다 6.2%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F=3.663, p < .001$ ). 추가로 투입한 가사분담에 대한 부인의 만족도 변인은 부부간 결혼만족도 불일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36, p < .01$ ). 즉, 부인이 가사분담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수록 부부간 결혼만족도 불일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결론 및 논의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는 다소 평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자신들이 비교적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였으며, 가사분담과 결혼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태도, 지각된 의사소통효율성, 지각된 가사분담투자비율, 가사분담 만족도,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역할태도, 지각된 가사분담투자비율, 가사분담 만족도, 결혼만족도에서는 부부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과 부인의 지각된 의사소통효율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부인이 남편보다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이미숙, 1996; 이미숙, 2000; 이은희, 2002; 이정우·강기연, 2001)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과거의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규범에서 벗어나 더욱 양성평등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맞벌이 가정의 남편은 자신보다 부인이 가사분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인도 남편보다 자신이 가사분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인은 남편이 지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가사분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부부 모두 가사노동이 부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연구결과와 부인이 가사노동 불공평성을 높게 인지한다는 연구(기은광, 2003; 이수정, 1997) 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사분담에 대한 부부의 지각 차이로 인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부부의 만족도 또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생활에 대해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부인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기존의 연구(이미숙, 1996; 이미숙, 2000; 이정우·강기연, 2001)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결혼생활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Fowers(1991)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부인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맞벌이 남편의 경우,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을수록, 가사분담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만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

차이가 적을수록, 가사분담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부가 지각한 의사소통효율성과 가사분담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이 결혼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선행연구(심혜선·이정우, 2001)의 결과와 결혼만족도에 부부 각자의 가사노동시간 보다 이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유계숙, 2010; 홍윤정, 1996)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가사분담에 대한 부인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부부간 결혼만족도 불일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부간 결혼만족도 일치정도에 남편보다는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부인의 가사분담 만족도가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편과 부인이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일치되고 더욱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절대적인 가사분담 시간보다는 가사분담에 대한 부인의 지각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적인 가사분담의 양보다는 이에 대한 지각이나 태도이므로 주관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 등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남편의 절대적인 가사분담 시간을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평등 문화 정착과 가정의 건강성 증진, 남성의 적극적인 돌봄 참여유

도를 통한 여성의 일-가족 갈등 해결의 가능성 증대 등을 목표로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 참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평등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도 교육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남편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부부의 가사분담 및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부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강학중, 2007). 본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볼 때, 맞벌이 부부가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절대적인 가사분담 시간을 늘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부의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고, 가사분담에 대한 부부의 지각차이나 만족도 등에 대해 부부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부인이 남편보다 더욱 많은 가사분담을 하고 있을지라도 효율적인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가사분담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하는 것보다 결혼생활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홀벌이 부부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사분담에서 더욱 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는 행복한 가사분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사분담에 대한 서로에 대한 지각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93쌍의 맞벌이 부부로서 남편과 부인 모두 주로 30대에 집중되어 있으



며, 결혼지속년수가 10년 이하인 부부가 대부분이므로 모든 맞벌이 부부를 대표하는 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령 및 가족생활주기에 놓여있는 다수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국규모의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의 가사분담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나, 홀벌이 부부를 연구대상에 함께 포함하여 홀벌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와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맞벌이 부부를 쌍으로 표집하여 가사분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했다.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홀벌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에 따른 결혼생활만족도를 비교하여 각 부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양적연구를 실시하였지만, 부부의 가사분담 결정 과정이나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주관적인 측면까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를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양적연구 증가와 더불어 질적연구를 실시하여 양적연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태도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 · 의사 결정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사무직 · 관리 · 전문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강학중(2007). 맞벌이 남편의 가사 및 자녀 돌봄 분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기은광(2003).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금옥(1998). 부부의 성역할 성향과 의사소통도 및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미령(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 35-62.
- 6) 김선미(2008). 가사도우미에 의한 가사노동 대체,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4), 15-33
- 7) 김유순(1998). 공평성 인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6(2), 213-231.
- 8) 김진영(2005). 기혼여성의 성행동 및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진옥(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지체 가설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57(3), 55-72.
- 10) 김현주(2003). 부부의 경제 및 가사역할의 수행과 인식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가족과 문화 15(1), 97-130.
- 11) 김화자(199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중, 고등, 대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두경자, 유희숙(2000). 확대기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47-57.

- 13) 마경희(200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논문집 119-144.
- 14) 문숙재, 허경옥, 홍윤정(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45-358.
- 15) 박주희(1994). 취업 부부의 가사노동의 시간과 성별 분리 정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성영애, 양세정(1996). 가사노동시간의 결정요인: 비취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비교. 인천대학교 논문집 2(1), 89-106
- 17) 손문금(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5, 239-287.
- 18) 심순아, 정옥분(2004). 중등기혼여교사의 결혼만족도와 직무수행과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6(4), 141-156.
- 19) 심혜선, 이정우(2001). 도시주부의 부부간의 사소통효율성, 가정관리전략 및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29-145
- 20) 유계숙(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70.
- 21) 유희숙(1999). 취업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와 결혼만족도.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유희숙, 두경자(1999). 취업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123-134.
- 23) 윤경자(1997). 성역할 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2-234.
- 24) 이명신(1998). 맞벌이 부부의 스트레스 결정요인: 전문직부인과 생산직부인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 115-148.
- 25) 이명신(2001). 전문직 맞벌이 부부의 권력구조와 가사분담. 사회과학연구 19(1), 43-78.
- 26) 이미숙(1996).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153-173.
- 27) 이미숙(1997).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성평등 연구 1, 279-288.
- 28) 이미숙(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45-161.
- 29) 이수정(1997). 맞벌이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이은희(200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99-119.
- 31) 이정우, 강기연(2001).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의사결정 참여도 및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9), 137-152.
- 32) 이택면, 김승연, 우원규, 이주영, 강석훈(2009). 2009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2차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3) 정기선, Yoshinori Kamo, 이지혜(2004). What Makes Husband and Wif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s-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 한국인구학 33(1), 133-160.
- 34) 정은애(2007). 자녀수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의 관계.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조정문(1995).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29, 559-584.
- 36) 조지은(2005). 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부모기 전이 부부를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

- 사학위논문.
- 37) 지혜정(2006). 부부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1), 51-80.
- 38) 채로(2003).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9) 채로·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40)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1) 최유경(2002). 결혼 초기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와 대처방안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2) 최정혜(2006).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지 18(3), 163-173.
- 43) 통계청(2009). 2009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 자료.
- 44) 통계청(2010a). 경제활동인구조사.
- 45) 통계청(2010b). 통계청 사회조사 등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부부의 자화상.
- 46) 한국여성개발원(1994). 1994 여성통계연보.
- 47) 홍윤정(1996).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8) Amato, P. R. & A. Booth (1995).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and Perceived Marital 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58-66.
- 49)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50) Bieuvonu, M. J. (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ion* 19(1), 26-31.
- 51) Crouter, A. C., & Helms-Erikson, H.(2000). Work and family from a dyadic perspective: variations in inequality. In Milardo, R. M., & Duck, S.(Eds), *Family as relationship* (pp100-133).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 52) Fowers, B. J.(1991). His and her marriage: A multivariate study of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Sex Roles* 24(3), 209-221.
- 53) Frisco, M. L., & Williams, K.(2003). Perceived housework equity, marital happiness, and divorce in dual-earner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Issues* 24, 51-73.
- 54) Hawkins, A. J., Roberts, T. A., Christiansen, S. L., & Marshall, C. M.(1994). An evaluation of a program to help dual-earner couples share the second shift. *Family Relations* 43, 213-220.
- 55) Jeries, N.(1979). Marital satisfaction as perceived by wive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7(4), 226-233.
- 56) Larsen, A. & Olson, D. H.(1990). Capturing the complexity of family systems: Integrating family theory, family scores, and family analysis. In Draper, T. W., & Marcos A. C.(Eds), *Family Variable*(pp19-47). Newbury Park, CA: Sage.
- 57) Lye, D. N., & Biblarz, T. J. (1993). The effects of attitudes toward family life and gender roles 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4, 157-188.
- 58) McHale, S. M., & Crouter, A. C.(1992).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Incongruence between sex-role attitudes and family work roles and its implications for

-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3), 537-547.
- 59) Pina, D. L., & Bengston, V. L. (1993).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wives's happiness: ideology, employment, and perceptions of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01-912.
- 60) Schumm, W., Nichols, C., Schectman, K., &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 53, 567-572.
- 61) Spanier, G. B., & Lewis, R. A.(1980).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825-839.
- 62) Suito, J. J.(1991). Marital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221-230.
- 63) Veroff, J., Young, A., & Coon, H, M. (2000). The early years of marriage. In Milardo, R. M., & Duck, S.(Eds), *Family as relationship*(pp19-38)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 64) Wilkie, J. R., Ferree, M. M., & Ratcliff, K. S.(1998). Gender and fairness-marital satisfaction in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3), 577-594.
- 투 고 일 : 2011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1년 1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2월 9일